

#편안함 #자연스러움 #기능성

# 언더웨어의 혁명 '브라렛' 뜬다

지난해 브라렛 판매량 160% 급증  
소재 다양화·패드 탈착 등 세분화  
화려한 레이스·홀터넥 스타일 등  
디자인 더해 패션아이템으로 활용

여성 속옷의 트렌드가 달라졌다. 인위적인 볼륨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성 속옷 트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편안함'이다.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이 선정한 올해의 S/S시즌 키워드 'S.O.F.T.'에도 이 같은 트렌드가 반영됐다. 'S.O.F.T.'는 ▲Sweet color(달콤한 컬러) ▲Only for my body(내 몸을 위한 편안함) ▲Floral design(꽃무늬 디자인) ▲T.P.O wearing(상황에 맞는 기능성)의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봄철 인기가 높은 디자인을 비롯해 다양화된 소비자 니즈에 따라 착용감과 세분화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좋은사람들 마케팅팀 박미경 과장은 "올 시즌에는 자기 취향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트렌드가 속옷업계로도 이어져 디자인부터 착용감까지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제2의 피부로서의 언더웨어가 주목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속옷 구매의 기준이 아름다움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무게를 옮겨가면서, '브라렛'과 같은 제품들이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다.

브라렛은 일반 브래지어와 달리, 패드와 와이어를 없애 압박감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해외에서 시작된 유행이 국내로 넘어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



비비안 브라렛 /남영비비안

만, 그 인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 남영비비안의 지난해 브라렛 판매량은 전년도와 비교해 16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요 속옷 업체들은 올 봄 신제품으로 브라렛을 선보이는 한편, 기능과 디자인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출시하고 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속옷은 물론, 패션 아이템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다.

디자인은 화려함과 심플함으로 양극화됐다. 레이스와 꽃무늬 등을 더해 미

적 요소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반대로 패턴 없는 심플한 스타일에 브랜드 로고만 더하는 추세다.

비비안은 부분 디자인이 특징인 브라렛을 선보였다. 곡선 패턴의 레이스가 홀터넥 스타일로 디자인돼 어깨와 등을 감싸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홀컵 원단과 부직포 컵을 적용해 무게는 낮추고 통기성은 높였다.

BYC의 란제리 브랜드 르송이 지난 달 선보인 브라렛과 팬티 세트도 있다. 브라렛은 레이스 런닝 스타일의 라운드 브라로 압박 없이 편안하면서도 볼륨감을 살려준다.

BYC는 노와이어, 매쉬 소재의 제품 생산을 지속 확대 중이다. 지난해 24종이던 품목은 올해 37종으로 늘어났으며, 제품 생산량도 전년 대비 2018년엔 120%, 올해는 154%까지 늘렸다.

에스의 '쁘띠레이스 노와이어 브라'는 가슴컵 안쪽에 이중 사이드 패드를 적용해 와이어 없이도 안정적으로 가슴을 모아주며, 컵 상변에는 레이스를 더해 미적 요소를 가미했다.

보디가드의 '인디핑크 레이스 브라렛'은 탈착 가능한 패드가 적용된 홀컵 스타일의 브라렛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봄에 어울리는 인디핑크 컬러와 잔꽃무늬 레이스가 특징이다.

바디기어의 'W.F 스트링 노와이어 브라'도 있다. 가슴컵의 와이어는 제거하고 X자 어깨끈 디테일을 더해 스타일과 착용감을 모두 살렸다.

남영비비안 감지영 디자인 팀장은 "브라렛은 착용감이 편한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이 아름다워 겹옷과 함께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하기 좋아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이마트 데이즈 브라탑 등 속옷 누적 130만장 판매

이마트 데이즈가 '언더웨어 왕국'이 됐다. 더운 여름 브라대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브라탑과 무봉제 접착공법을 활용한 브래지어 등 편안한 착용감의 'The 편안한 데이즈' 언더웨어 누적 판매량(2016~2019년 3월)이 총 130만장(100억여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 2~3년 간 급속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데이즈는 9일 2019년 S/S(봄/여름) 시즌 새로운 'The 편안한 데이즈' 120여종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대표 상품은 '애슬레저(athleisure)' 열풍에 따라 일상복으로 자리잡은 브라탑이다.

데이즈는 총 46종(45만장)의 브라탑

을 출시하고 9980원/1만2800원에 판매한다. 와이어와 후크가 없는 브라탑은 브래지어와 달리 민소매 티셔츠처럼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데이즈는 특히 올해 인견 소재를 접목한 쿨 브라탑을 비롯해 어깨끈 모양도 11자와 X자, 레이스와 밴드 등으로 다양화했다. 볼륨을 살려주어 맵시있는 옷태를 낼 수 있는 브라탑과 큰 컵(B/C컵) 브라탑도 출시했다.

데이즈 브라탑은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85만장, 매출액으로는 80억원에 이르는 효자MD다. 전년 동기 대비 신장율로도 2017년 73%, 2018년 10%, 2019년 1~3월 6%로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면세점 해외여행때 반려견 걱정 '뚝'

애견호텔 독독과 제휴 맺고 이벤트

신세계면세점이 프리미엄 애견호텔 '독독(DogDog)'과 제휴를 맺고, 반려견을 두고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신세계면세점은 애견호텔 '독독'과의 제휴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강남점에서 300달러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애견호텔 독독 디럭스 룸 1박 숙박권, 600달러 이상 시에는 2박 숙박권을 증정한다. 이



와 별도로, 신세계면세점 회원 카드 소지 시 독독 이용금액의 10%를 상시 할인해 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오크향 품은 '위스키 소주' 맛보세요

서울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미국에서 탄생한 미국물 먹은 소주, 일명 '위스키 소주'를 서울신라호텔에서 만난다.

서울신라호텔의 라운지&바 '더 라이브러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위스키 공법으로 만든 소주 '웨스트 32 리저브'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의 위스키 종류법과 맛의 기준으로 고급스럽게 변신한 '위스키 소주'를 경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뉴욕 맨해튼에서 생산되는 '웨스트 32 리저브'는 소주에 위스키 공법인 오크통 숙성과정을 거쳐 '위스키 소주'로 불린다. 일반 소주는 증류 과정을 거친

후 바로 제조되는 반면, '웨스트 32 리저브'는 오크통에서 숙성과정을 통해 위스키의 맛과 향이 가미돼 완성된다.

'웨스트 32 리저브'는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인 후, 불과 2년만에 미국 내에서 트렌디한 프리미엄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웨스트 32 리저브'는 위스키와 소주의 장점이 어우러져 32도의 도수에도 목넘김이 부드럽고 입 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오크향이 특징이다.

쌀을 이용하는 보편적인 한국 소주와 달리, '웨스트 32 리저브'는 뉴욕과 코네티컷 지역에서 생산된 옥수수로 만든다. /김민서 기자



## 애경산업 샤워메이트 5천원대 1200g 대용량 '내추럴 바디워시' 출시

애경산업의 토틸 바디케어 브랜드 샤워메이트는 '내추럴 바디워시'(샤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샤워메이트 내추럴 바디워시는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순한 처방의 제품이다. 풍성한 거품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촉촉함을 전해준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광물유, 인공색소, 동물유래성분 등이 제외됐다.

특히, 이 제품은 1200g 대용량을 5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정해 '가성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목화꽃의 깨끗한 향을 담은 '클린코튼'(Clean Cotton) ▲달콤한 향의 '크랜베리'(Cranberry) ▲상큼한 향의 '유자' ▲싱그러운 향의 '라임'(Lime) ▲달콤 상큼한 향의 '복숭아' 등 5종으로 출시됐다. /김민서 기자

## 30주년 기념 캔버스소재 '써티라인'

빈폴액세서리 3색 컬러 토트백

빈폴액세서리는 빈폴 브랜드의 30주년을 기념해 캔버스 소재를 활용, 트렌디하고 실용적인 '써티(Thirty) 라인'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빈폴액세서리 '써티 라인' 컬렉션은 봄을 맞아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사이즈로 출시돼 연령에 상관없이 활용하기 좋다.

빈폴액세서리는 가방 핸들의 3색 컬러 웨빙 디테일이 고급스럽고 신선한 느낌으로 완성된 써티 스몰 토트백을 대표 상품으로 내세웠다. 오염에 강하고 내구성이 높은 PLC캔버스 소재를 사용했고, 가방의 원판과 핸들은 3색 테이프로 디자인했다.

PLC캔버스 소재는 면과 폴리가 섞인 합성소재로, 일반 캔버스에 비해 오염이 잘 되지 않고 내구성이 강해 관리가 용이하다. 또 단단하게 각이 잡히는 소재라서 물건을 담았을 때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다.

써티 스몰 토트백은 탈부착이 가능한 어깨끈이 있어 솔더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적절한 사이즈와 내부 오픈 포켓 등으로 구성돼 실용적이다. 라지와 스몰 사이즈 두 가지 타입이며 레드, 아이보리, 네이비 등 3색 컬러로 출시됐다. 빈폴액세서리는 써티 솔더백과 버킷백 등도 내놨다. /김민서 기자

## "엄마와 특별한 여행으로 추억 만드세요"

롯데호텔제주 '엄마는 소녀'

롯데호텔제주는 '엄마와 딸'만의 특별한 여행을 위한 '엄마는 소녀'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오는 5월 31일까지 예약 및 투숙이 가능한 '엄마는 소녀' 패키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시원한 전망의 디럭스 테라스 오션 객실 1박에 2인 조식, 모녀만의 오붓한 티 타임을 위한 애프터눈 티 세트 1회, 폴란드 암염광산에서 추출한 특별한 성분이 매끈한 피부를 만

들어주는 비엘리츠카 입욕제와 스크럽을 함께 제공한다. 뉴트로 스타일의 일회용 필름 카메라도 포함돼 제주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간편하게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번 패키지는 연박 예약 시 '런치 스페셜 무제한 초밥정식' 2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환상숲 꽃자왈 체험' 등 롯데호텔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김민서 기자